

9. 삼국 접근의 종료: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한국전쟁

3국 분석 틀의 끝

청 왕조는 1796-1804년 간의 백련 교도(白蓮教徒) 난과 1839-42년 간의 영국을 상대로 한 아편 전쟁으로부터 (1846-8년의 홍수와 기근에 뒤따른) 1851-64년 간의 태평천국(太平天國) 봉기에 이르기까지, 안으로는 한족 농민반란과 밖으로는 서구 외세의 침탈에 압도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내우외환의 와중에서 소위 천하무적이라는 팔기군의 명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국가 보위를 담당하던 팔기군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던 한족 녹기군도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청 조정은 유교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신과 주변 농민들의 가정과 전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한족 신사(紳士) 계급이 조직한 향용(鄉勇, 團練)이라는 민병대 덕분에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다.¹

서태후(西太后) 섭정 치하의 북경 지도층은 서구 열강과의 치외법권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체제(條約體制)를 수용하고, 지방의 보수적인 한족 신사-장군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택해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청 왕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²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은 북중국 안휘성의 지주-사족 집안에서 태어나 24세가 되던 1847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중앙정부의 관리 생활을 시작했다.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자 중국번(曾國藩) 휘하에서 향용을 거느리고 뛰어난 전과를 올리면서 1870년부터 북경주변의 직예총독(直隸總督)과 북양통상대신(北洋南洋通商大臣)을 역임했다. 이홍장은 「일평생 청 왕조를 중국과 동일시 하면서 현대화(自強新政)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³ 이홍장의 군대 모양 현대식 무장을 갖춘 각 지방의 신식 군대의 존재는, 더 이상 농민 반란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¹ 청대 지배계급 중 신사(紳士)는 퇴직 관료, 과거(科擧) 혹은 학교를 통해 학위를 얻어 부와 명예를 소유한 향촌(鄉村) 사회의 특수 구성원을 지칭한다.

² Fairbank and Goldman (1992: 213) 참조. 1862-74년 기간을 동치중흥(同治中興)이라고 칭함.

³ Chu and Liu (1994: 25, 33-4, 39, 49, 50-1) 참조.

청 조정은 근대적인 중앙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서구화는 한족 토착 세력이 지배하는 지방정부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중앙의 만주족 지배자들은 국가 통제력을 상실했고, 외세에 의해 국토가 찢겨져 나갔다.⁴ 1894-5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중국 본토와 한반도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청 조정은 일본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1860년 (북경조약 체결) 이래 극동으로 적극 진출해 온 제정 러시아를 만주로 끌어들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에 노일전쟁에서 승리했고, 남만주와 한반도를 모두 점거하게 되었다.

장개석(蔣介石)은 청 왕조를 몰락시킨 1911년의 신해혁명에 참가하였다.⁵ 원세개(袁世凱 r.1912- 16)는 청 황제의 퇴위를 혁명 세력과 협상 하면서 1911년에 초대 총통으로 등장했다.⁶ 북중국 지주-사족 집안 출신인 원세개는 향시에도 합격 못했지만, 이홍장과 대를 이어 청조에 충성을 다한 최후의 유교전통 한족 (과거시험) 세대에 속한다. 장개석은 제위에 오르려는 원세개를 축출하기 위한 3차 혁명에도 참여하였다.⁷ 원세개는 1916년에 망명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다. 과거제도는 1905년에 철폐되었고, 남중국 농민-상인 계급 출신인 손문, 장개석, 모택동은 과거와 단절된 신세대 지도자들이었다.

⁴ 전계서 (1992: 213) 참조.

⁵ 장개석은 1887년에 절강성의 염상(鹽商) 가문에서 태어났다. 1906년에 화북에 있는 (원세개가 지원 하는) 보정(保定) 군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07년에는 청 정부가 중국 학생의 학비를 부담해 준 덕분에 일본 동경에 위치한 사관학교에 유학을 하였다. 1909-11년 기간 중 일본 북부의 일본군 야포 연대에 근무했었다. 1911년, 부대를 이탈하고 배편으로 상해에 돌아와 혁명에 참여하였다.

⁶ 원세개는 1859년에 하남성(河南省) 지주-사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최하급 과거시험조차 합격하지 못했으면서 직예총독(수도 지역 2-3개의 省을 관할)과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된 최초의 한인이다. 그는 서태후가 죽는 1908년까지 그녀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원세개는 이홍장의 휘하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부대는 1882년에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원세개는 1885년에 한성의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되었고, 그의 활동은 청일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원세개는 귀국 후 새로이 설립된 신군(新軍)의 훈련을 맡았다.

⁷ 신해(辛亥) 혁명을 1차 혁명, 송교인(宋教仁) 암살과 대차관(大借款) 응징을 2차 혁명, 반제제(反帝制) 운동을 3차 혁명이라 부른다.

「만주족과 한족은 한 가족」이라는 청 조정의 구호(口號)

손문은 1912년부터 다민족의 국가적 통합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손문은 「국가의 뿌리는 국민이며, 국가적 통일이란 한족, 만주족, 몽골족, 이슬람족, 티베트족들이 사는 지역이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이들 5족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⁸ 손문은 「만주족과 한족(漢族)은 한 가족」이라는 청 왕조의 구호로부터 영감을 받아 「5족 한 가족」(五族共和)을 제안했던 것 같다.⁹ 후에 장개석은 “5개 종족”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섯 인민”이라고 말했다.

장개석은 1918년에 손문의 국민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생활을 시작하였다. 손문의 주된 관심사는 군벌들이 분할 점거한 중국을 재통일하는데 있었다. 1923년, 손문은 장개석을 모스크바로 보내 적군(赤軍) 조직을 연구하도록 했다. 장개석은 레닌과 스탈린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트로츠키를 만났고,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장개석은 귀국하자, 광주에 소비에트 방식을 모방해 설립된 황포 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당 군대를 조직하였다. 스탈린은 이 학교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적군 장성들을 군사 고문관으로 파견하였으며, 장개석이 혁명군 총 사령관의 지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하는 1927년까지 장개석을 지원하였다. 1927년 이후, 스탈린은 공산당을 직접 지원하여 공산 혁명을 실현하고자 했다.

군벌 타도를 위해 장개석이 벌인 대대적 전쟁은 중국대륙에서의 군벌시대(1916-27)를 종식시켰다.¹⁰ 1925년에 손문이 죽자, 장개석은 국민당 당수로서 그를 계승하였다. 1928년, 장개석은 남경에 수립된 신생 중앙정부의 총통이 되었고, 공산당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은 농촌지역으로 물러가 홍군(中國工農紅軍)과 소비에트 정부를 조

⁸ Elliott (2001: 359) 참조.

⁹ Elliott(2001: 359-60)에 의하면, “5족 공화”는 청조가 자기들의 제국을 정의한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여기서 5족이란 건륭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오체청문감(五體清文鑑)의 (만주어, 티베트어, 몽골어, 위구르어, 한어)의 5개 언어에 상응하는 것이다.

¹⁰ 1927년 12월, 장개석은 상해의 재벌인 송가수(宋嘉樹)의 셋째 딸 미령(美齡)과 결혼하고 기독교도가 되었다. 미령의 언니는 손문의 부인 경령(慶齡)이었다. 장개석과 송미령의 결혼은 군권, 정치권, 금권의 결합이었다. 송미령은 웰슬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서방 세계에 장개석의 정치적 신조를 홍보하는 글을 많이 썼다.

직 하였다. 1931년, 장시(江西)에 모택동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 소비에트 지구가 수립되었다. 장개석은 공산당에 대해 전면적인 토벌전쟁을 재개하려 했으나, 1932년의 일본군 만주 침략(만주사변)은 모택동에게 숨길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¹¹

일본에 의해 세워진 만주 괴뢰국

일본은 노일전쟁에 이기고 나서 제정 러시아로부터 남만주 철도의 운영권과 요동반도의 조차지를 넘겨 받았다. 일본 관동군의 참모장교들이 심양에 있는 장개석 중국군 수비대를 공격할 계획을 꾸며, 1931년 9월에 습격을 감행했다.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점령하고, 1932년에 청조의 마지막 황제인 부의(溥儀 r.1909-12)를 수반으로 괴뢰 만주국을 세웠다. 1933년에는 열하성(熱河省)을 합병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으며, 1934년 3월에는 부의를 만주국 황제로 만들었다.¹² 일본 역사가들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벌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일본이 (1644년) 만주족 정복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던 시도로 간주한다.¹³

청나라의 유산: 다 인종 통합 국가로서의 중화 인민공화국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장개석은 공산당과 먼저 싸우기로 결정하였다. 장개석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자, 모택동은 1934년 10월에 20만 명의 군대와 함께 중국의 남동부를 탈출하여, 소위 1934-5년의 대 장정(長征)에 올라, 북서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연안(延安)으로 퇴각했다. 공산당 군대는 모택동의 지휘 아래 중국대륙 남부에서 섬서

¹¹ 모택동은 1893년에 호남성의 부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1년에 청조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군에 가담하였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소학교 교사와 북경대학 도서관의 조수로서 일했다. 모택동은 1924-25년 기간 중 공산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¹² 1940년대 초 만주국의 인구는 4천 3백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그 중에는 (1920년대 말의 80만 명으로부터 크게 증가한) 약 2백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¹³ Fairbank and Goldman (1992: 312)

성(陝西省) 북부까지 6천 마일을 이동했던 것이다.¹⁴

대장정 이후, 공산당은 농촌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 운동의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로 등장했다. 모택동은 칼 맑스가 말하는 무산 계급보다는 농민을 혁명의 전위대로 내세웠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공산당 군대는 장개석의 군대와 협력하여 함께 싸웠으나, 일본이 항복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장개석의 통치를 거부하였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내전이 벌어졌다. 1949년 4월, 모택동은 남경의 국민당 정권을 축출했고, 장개석 군대는 대만으로 달아났다.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족 본고장을 비롯해 청나라 지배자들이 정복한 모든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티베트는 자신의 정복 노력으로 보존하게 되었다.¹⁵ 중화 인민공화국은 “많은 민족들이 함께 뭉친 국가”라고 천명하고, 55개의 모든 소수 민족들을 평등하게 대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통일 다민족국가(統一多民族國家)라는 이념을 내세웠다.¹⁶

청 왕조는, 만주족 자신들이 분명하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중국 인민, 중국 국가, 중국 영토 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 하였다. 청 나라가 지배하던 바로 그 인민들이 오늘날의 중국 인민들이 되었다.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중국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한족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중국 인민, 중국이라는 국가, 중국의 영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시도했다.

Elliott(2001: 361)에 의하면, 현대 중국의 국가적 신화(神話)는 중국이 “중화라는 이름 아래, 많은 지역과 많은 인종들이 크게 화합하여 통합된” 국가라는 것이고, 이 신화의 기초는 “300여년의 만주족 정복왕조 통치가 남긴 영토와 인종적인 유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¹⁴ 고려 공산당은 화북의 중국공산당 운동에서 동맹 상대를 찾았으나,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3000명 규모의 광복군을 가지고 장개석의 국민정부에 협조하였다. 일본은 1944년까지 한국인의 16%(약 4백만 명)를 한반도 밖으로 내 보내 일본의 전쟁 수행 목적에 동원했다. Eckert, et al. (1990: 322) 참조.

¹⁵ 1949년에 중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마자, 티베트인들은 독립을 위해 봉기했고, 20여 년에 걸친 독립투쟁은 1969년에야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무력으로 완전 진압되었던 것이다.

¹⁶ Elliott (2001: 160) 참조.

표준 중국어 (보통화) “만다린은 만주어로도 간주될 수 있다”

요동의 한족 정착민 후예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방언, 즉 알타이 계통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만주족 귀에 익은 한족 팔기군의 언어는, 정복 초기에 한군팔기의 다수가 중앙관료로 임용되는 과정을 거쳐, 정복왕조 관리들이 사용하는 언어(北京 官話)로 정착 되었고, 그 후, 중앙관료로 출세할 꿈을 가지고 진사시험을 준비하는 한족 지식계급의 필수 공용어가 되는 과정을 거쳐, 현대 중국의 공식 상용어가 되었다.¹⁷

알타이어 특성을 가진 북 중국 방언의 존재는 명 나라(1368-1644) 훨씬 이전 시대에도 발견된다. 만다린은 만주족과 한족 팔기병들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언어 매체였다. 북중국 만다린 방언은 명백히 알타이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종족들을 융합하는 팔기제도를 통해 세련된 언어 형태가 된 것이다. 만다린은 알타이어의 기층 위에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중국어의 초기 형태는 한장어(漢藏語) 계통에 속하는데, 단음절 형태소 구조, 성조(聲調)의 구별, 어형변화 부재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반면, 알타이 계통 언어는 다음절 형태소, 성조의 부재, 고도로 발달한 어미변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⁹ 만다린은 오늘날의 한장어 중에서 음절 안에서의 소리 높이 차이가 가장 적고, 다음절의 단어가

¹⁷ Janhunen (1996: 163-7), Spector (1964: xxv-xxvii), Crossley (1999: 120), Peterson (2002: 176), Elman (2000: 167-8, 239-40, 375, 380) 참조.

¹⁸ 만다린은 어느 정도 혼합된 유형의 혼성 언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다린의 초기 역사를 보면, 사용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한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만주족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제 2 외국어로서 만다린은 이민족과 한족간의 의사소통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거주하는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다른 종족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다. 종족간에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서 만다린이 필요 했던 첫 번째 지역은 요동이었다. 그 지역의 조선어, 여진어, 거란어, 몽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어 이외에는 다른 공통 언어가 없었다. 청 왕조의 본토 정복과 더불어 요동 지역의 만다린 방언이 북경 지역으로 옮겨 온 것이다. Janhunen (1996: 167) 인용.

¹⁹ Ostler(2005: 138)에 의하면, 알타이 계통 언어의 어휘는, “최소한 명사와 동사들은, 짧은 음절들이 연결되어 만들어 지는데, 모음조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어미의 모음은 어근의 모음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어순을 보면,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온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단음절에 성조를 가지고, 단어를 구성할 때 음절을 모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사가 문장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중국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장 많으며, 어미변화와 알타이적 문장구조를 가진 언어다.²⁰ “만다린, 만주족의 언어: 얼마나 알타이적이냐?”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운 논문에서 오카다는 “청(淸) 대의 북경 만다린 방언은 고도로 알타이 어화 된 중국어”라고 주장한다.²¹ Janhunen (1996: 164-8) 역시, 약간 과장을 한다면, 만다린을 만주어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양극(兩極) 세계의 변두리에서

1853년, 미국 해군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일본 해안에 진입 해, 도쿠가와 막부 정권에게 개국을 강요했다. 일본 국민은 소군(將軍)을 쫓아 내고 새삼 복원된 황실의 권위 아래 단결하여 명치유신(1868-1912)이란 이름으로 서구화-공업화를 시작했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제국주의를 모방 하면서 청일전쟁(1894-5)에 승리를 거두었다. 1860년 이래 극동을 장악하게 된 제정 러시아는, 1903년, 일본에게 한반도 39도선 이남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 해 줄 테니 39도선 이북은 중립화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노일전쟁(1904-5)에 승리하여 조선을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1910년에 일본에 병탄 합병 되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일본인 통치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1943년 12월 1일, 루스벨트, 처어칠, 장개석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이 적절한 단계를 거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 초,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양국 군대의 한반도 분할 점령지역 경계선으로 설정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UN 주관 하에 선거가 시행되었다.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73세의 이승만이 대통

²⁰ “만다린은 몽골어와 만주어처럼 워면(我們, 너를 제외한 우리)과 잔면(咱們, 너를 포함한 우리)을 구별할 수 있으며, 자음이 연속해서 나오는 현상이 없다. 알타이어 역시 음절을 시작할 때 자음을 한 개 이상 가질 수 없으며,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단음절들이 뭉쳐져서 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만다린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경향이 있으며, 비교 형용사 앞에 「~~보다」 라는 구절이 오는데, 이것도 알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Ostler (2005: 145-6) 인용.

²¹ Okada Hidehiro, *Aetas Manjurica* 3 (1992), pp. 165-87. Elliott (2001: 101 and 414)와 Mantarō Hashimoto, "The Altaicization of Northern Chinese," in J. McCoy and T. Light, eds., *Contributions to Sino-Tibetan Studies* (Leiden: E. J. Brill, 1986), pp. 76-97 을 참조.

령에 취임했다.²² 스탈린은 같은 해 9월 9일에, 33세의 김일성을 수반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북한에 수립했다.²³

스탈린과 한국전쟁 (1950-3)

1949년 3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김일성은 침공이 시작되면 즉시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스탈린을 설득하려 했다. 스탈린은 원칙적으로 김일성의 발상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6월 29일에 남한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 김일성에게 게릴라 전을 전개하라고 종용했다. 6월과 9월 사이, 김일성은 특수 훈련을 받은 1,200명의 전투 요원을 내려 보냈으나, 대부분의 게릴라 조직은 남한 군대에 의해 소탕되었다.²⁴

1949년 4월, NATO가 결성되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 사이에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고 믿었지만 마지막 결전의 때와 장소는 자신이 결정하기를 원했다. 김일성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일본을 침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해 줄 것 이지만,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 사이의 주 전장 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스탈린은

²² 이승만은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았고, 1894년에 서울의 메소디스트 계통 배재학당에 들어가 영어를 배웠다. 1896년, 왕정을 개혁하고 일본의 식민지 야욕을 추방하려고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활동을 하다가 (일반 선거로 의회를 구성한다는) 정부 전복 죄목으로 1898년에 투옥되었다. 1904년에 출옥하자,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Princeton 대학의 정치학과에서 1910년에 국제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승만은 Wilson 대통령 집안과는 Princeton 대학 총장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1910년에 귀국하여 잠시 YMCA의 일을 보고, 중학교 교장 노릇을 했다. 1912년, 일제 식민지 당국의 체포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스승이었으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Woodrow Wilson을 보고 한국을 지원 해 줄 것을 청했지만, Wilson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간섭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 1919년 4월, 상해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고, 1920년에는 대통령이 되었다. Burton I. Kaufman (1999: 101) 참조.

²³ 스탈린은 1879년에 조지아에서 태어나, 레닌 사망 후, 1924년에 집권을 했다.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났고, 1919년에 가족 모두가 만주로 이주를 했다. 1932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김일성은 항일 게릴라 운동에 가담했다. 후에 일제가 게릴라 박멸작전을 전개하자, 1939년(혹은 1940년)에 소련의 극동 지역으로 건너가 소련군 대위 계급으로 한국인 부대를 지휘했다. Goncharov, Lewis, and Lita (1993: 131) 참조.

²⁴ Stueck (1995: 30-31), Kaufman (1999: 119) 참조. 서대숙(1988: 121)에 의하면 1949년 9월부터 1950년 3월까지 3,000명 이상의 게릴라들이 남파되었다.

유럽이야말로 10년-20년 이내에 세계 제국주의를 박멸하는 결정타를 날리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믿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동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의 진행을 조심스럽게 조작해서, 모택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병력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부담의 대부분을 혼자 지도록 하는 동시에, 모택동을 서방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모조리 끊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⁵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생각이 아니라 김일성의 생각”

후루시초프는 그의 회고록(1971: 400-1)에서 말한다: “1949년 말, 김일성은 스탈린과 협의를 하기 위해 수행원 일단과 함께 도착 했다. 북한인들은 남한을 총칼로 찌를 것을 원했다. 김일성은 한번만 찌르면 남한이 내부적으로 폭발 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스탈린은 김일성의 발상에 반대 할 수가 없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고, 계산을 좀 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도록 설득했다.”²⁶

후루시초프는 회고록(1971: 401-2)에서 말한다: “김일성은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계획을 완전히 수립 한 다음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자신이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당시 스탈린이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탈린은 미국이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울었다. 김일성은 전쟁이 재빨리 승리로 끝난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입도 피할 수 있을 것이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모택동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이번 전쟁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내셔널 신문기자 클럽에서 미국은 군

²⁵ 전계서 (1993: 207, 210, 212) 참조.

²⁶ Nikita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commentary by Edward Crankshaw, and translated by Strobe Talbott (Little Brown, 1970; Bantam, 1971). Stueck (2002: 2-3)은 일부 서클에서 이 회고록의 합법성-정확성을 의심한다고 말한다.

사적 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오끼나와-필리핀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위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을 하여, 한국이 미국 방어선 밖에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50년 4월 중, 김일성은 남한 공산조직의 지도자이었고, 1946년에 월북 한 후 북한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된, 박헌영과 함께 또 다시 모스크바를 찾아 왔다. 이번에는 스탈린이, 모택동의 승인을 얻으라는 단서를 달아, 남한 침공을 승인했다.²⁷ 남침 계획을 위장하기 위해, 김일성은 1949년 6월부터 공격 개시 6일 전인 1950년 6월 19일까지 남한 당국에 평화적 통일을 계속 제안해왔다.²⁸

서대숙(1988: 112, 121)에 의하면, 김일성이 남침 결정을 하게 만든 핵심 요인들은 (1) 미군철수, (2) 중국 본토에서의 공산당의 승리, (3) 한국이 미국 방어선 밖에 있다는 1950년 1월 애치슨의 성명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침 개시 즉시 자신의 추종자 20만여 명이 봉기를 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김일성 역시 일단 철수한 미군이 한반도로 되돌아올 시간여유가 없을 정도로 전쟁이 빨리 끝나리라고 믿었다 한다.

1950년 6월 25일: 남침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비행기, 중형 대포와 전차 등을 제공 해왔고, 모택동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되어 있던 약 40,000명의 고참 한국인 병사들을 김일성에게 넘겨

²⁷ Goncharov, Lewis, and Lita (1993: 213-4, 136-7, 138-54) 참조.

북한주재 소련 대사 Shtykov가 1950. 1. 19일 자로 Vishinsky에게 보낸 전문 해독: -- "김일성은 자신이 모스크바에 갔을 때 스탈린 동무가 자기에게 이승만 군대가 북쪽을 공격하면 남한으로 반격을 해 내려가도 좋다고 말했는데, 이승만이 아직 공격 할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시 스탈린 동무를 찾아보고, 남한 국민을 해방하기 위해 인민군이 공격을 해도 좋다는 허가와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자신은 공산주의자이며, 규율 존중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에게는 스탈린 동무의 명령이 법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시작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talin이 1950. 1. 30일 자로 Shtykov에게 보낸 전문 해독: -- "김일성은 그렇게 큰 사업을 벌리려면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무 큰 위험부담이 없도록 사업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Kaufman (1999: 122-1) 인용.

²⁸ 서대숙 (1988: 105, 113, 120) 참조.

주고 있었다.²⁹ 1950년 5월, 스탈린은 세부적 침공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새로운 팀의 소련군 장교단을 파견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중무장을 한 200,000만 명의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가볍게 무장을 한 100,000명의 남한 군대에 공격을 개시했다.

맥아더 장군은 회고록(1964: 328, 330)에서 말한다: “남한은 38도선을 따라 4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남한 군대는 일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로서가 아니라, 치안유지 병력으로 조직되고 장비되어 있었다. 그러한 결정은 미국 국무성에서 만들어 진 것이었다. 말인즉,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³⁰

흐루시초프는 회고록(1971: 401-2)에서 말한다: “나는 그 전쟁이 스탈린의 생각이 아니라 김일성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김일성이 벌린 것이다. 물론 스탈린은 김일성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부축인 것을 책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김일성의 성공을 바랬고, 투쟁에 승리할 날을 고대하며 북한 지도자들에게 축배를 들었던 것이다.”

1949년 8월, 소련의 원폭 장치 폭발시험은 미국의 원자폭탄 독점에 종말을 고했다. 곧 이어, 장개석이 중국본토에서 축출되었고, 프랑스는 비에트민과의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다.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호치민 정권을 인정하라고 설득했다. 영령 말라야와 친미 필리핀에서는 공산 반군들이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옴으로 한반도는 전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군 참전: 트루만은 유화 정책이 공산 침략을 조장할 뿐이라고 믿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재빨리 행동했다. 미군의 파견을 승인하고, 6월 28일자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유엔군 파병 결의안을 얻어냈다. 주일 미군 사령관 맥

²⁹ Stueck (1995: 62) 참조. 이들 고참 병사들 중 10,000명은 중공군 166사단 출신으로,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1군단의 제6사단으로 개편되어 방호산(方虎山)의 지휘를 받았다. 6사단은 남침 1개월 만인 7월 25일에 순천에 도달했다. 중공군 20사단 출신 병사들은 중부 전선 춘천 지역을 공격한 북한군 2군단의 제7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중공군 164사단 출신은 김창덕 지휘아래 동해안 간선도로에 투입된 북한군 제5사단으로 개편되었다. 노병천 (2000: 411), 한국전쟁사 1 (1992: 118) 참조.

³⁰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1964) 참조.

아더 장군은 6월 29일에 한강 전선을 시찰했다. 미 8군 휘하 제24사단의 Smith 중대가 7월 1일 선발대로 부산에 상륙을 했다. 7월 14일,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트루만은 (1938년의 문헨식) 유화정책은 계속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조장할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파병을 신속하게 결정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직접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7월 4일자로 김일성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자신과 소련의 직접적 연관 흔적을 제거했다.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한지 10일이 지난 7월 4일에 비로서 최고 사령부가 조직되고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최용건이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날부터 110일간 김일성은 UN군과의 전투를 책임지다가, 북한군은 괴멸되었고, 10월 24일에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에게 지휘권이 이양 된다.

흐루시초프는 회고록(1971: 402-3)에서 말한다: “김일성이 진군을 준비할 때, 스탈린은 북한군 사단과 연대에 배치되어있던 소련군 고문단들을 모두 철수 시켰다. 내가 스탈린에게 그 이유를 묻자, 스탈린은 내게 화를 내며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 고문단을 거기 놓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아느냐?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일에 개입되었다고 추궁 받을 증거가 생기면 안 된다. 이 전쟁은 김일성의 사업인 것이다. ... 북한군은 재빨리 남쪽으로 쓸어들어 갔다. 하지만 불행히도 첫째 번 총성과 동시에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실각될 것이라는 김일성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³¹

김일성은 이승만 정부 요인들의 식민지 시절 친일 성향을 강조해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 노예화 위험성과 민족 지상주의를 선전하여 미국과 미군을 남한 국민들 마음 속으로부터 격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 추종자들이 당시 남한의 언론, 영상 매체, 노동조합, 교육 현장 등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친일파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홍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³¹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건했고] 남한 공산당의 지도자이었던 박헌영은, 자신의 남한에서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적 침공 보다는 민중봉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과 지하 조직원들이 대부분 체포되자, 박헌영은 군사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일단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하면 20만 여명의 총성스러운 자신의 추종자들이 봉기하여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한다. 1963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일], 김일성은 (자신이 1955년 12월 3일자로 사형시켜버린) 박헌영을 거짓말 장이었고, 추종자가 20만은 고사하고 1천명도 안되었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서대숙 (1988: 121) 인용.

없었던 것 같다. 또, 미국 내에 혐한(嫌韓) 감정을 확산시킬 마땅한 수단도 없었고, 남한 정부가 반미정권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의 참전을 저지할 내부적 수단도 없었다.

한국군과 미군은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낙동강을 따라 방어선을 형성했다. 세계는 아시아판 Dunkirk 대규모 철수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23일, 맥아더(1964: 346)는 워싱턴으로 전문을 보냈다: “9월 중순에 적 후방에 2개 사단 병력으로 상륙작전이 계획되어 있다. 남쪽으로부터 8군의 공격과 연계하여 적군을 포위 섬멸할 목적이다. 나는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게 적 후방을 공격하여 주 보급로를 차단시키면 적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철퇴를 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면 공격을 택한다면, 전투가 길어지고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역전 시켰고, UN군은 북으로 진격했다. 스탈린은 상황전개에 큰 충격을 받았고, 패전 가능성도 수용했던 것 같다. 스탈린은, “뭐 그러면 어때. 미국 놈들이 우리 이웃이 되라지!”라고 말하면서, 10월 초에 김일성에게 북한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했다.³² 그때 모택동이 30만의 군대를 보내 김일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 스탈린은 중공군에게 소련 공군의 엄호를 제공하고, 중공군이 패하게 되면 소련이 직접 개입한다고 약속을 했다.³³

흐루시초프는 회고록(1971: 405)에서 말한다: “주은래가 모택동의 지침을 받고 스탈린을 보러 날라왔다. 당시 북한군은 거의 괴멸되었다. 주은래는 미군과 한국군의 진격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입 여부를 스탈린에게 물었다. 그들은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했다. 인민해방군은 이미 국경지대에 포진을 하고 있었다. 스탈린과 주은래는 그 정도 병력이면 사태를 충분히 수습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주은래는 다시 북경으로 날라갔다.”

중국 인민 의용군의 참전

1946년 12월과 1947년 1월 사이에 장개석 군대가 만주에 진입하자 소비에트

³² Gaddis (2005: 43-5) 인용.

³³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1993: 216) 참조.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스탈린이 배반을 하여,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1951년 1월 10일 기간 중] 소련 공군의 엄호를 받지 못하고 전투를 시작해야 했다. 모택동은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북경 지도자들은 자립을 강조하게 되었고 ... 이는 장래 중-소 결별의 전주가 되었다.” Chen (1994: 220-3) 인용.

점령하의 북한은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장개석 군대는 무분별하게 만주 거류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적대적으로 다루었다. 스탈린은 1946년 중 북한 군대를 대폭 확장 시키고 있었고, 1947년 4월에는 김책의 지휘 아래 3만 명의 조선 의용군이 만주로 건너갔다. 급기야 7만 명에 달하는 "조선 인민 의용군"이 만주 중국 공산군의 15-20%를 구성하면서 장개석의 중국군을 쫓아 냈다.³⁴

중화 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공식 수립 된지 1년 19일이 지난 1950년 10월 19일, 약 200,000명의 "중국 인민 의용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³⁵ 11월 25일, 모택동의 장남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11월 29일, 맥아더는 빠른 시일 내에 장개석의 군대를 UN군 사령부 산하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는 전문을 보냈다. 1951년 1월 4일, 유엔군은 서울을 또 다시 빼앗겼다. 소련 공군은 1951년 1월 10일 이후에야 전투에 참가하기 시작했다.³⁶

맥아더는 합동 참모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받았다: "앞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한국 밖으로 쫓아 내보낼 수 있을 충분한 규모로 전선에 대규모의 군대를 집결시킨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귀관에게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할 것을 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모택동은 한국군을 섬멸하고, UN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워커 장군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다음에 그 후임으로 (1950년 12월 26일 자료) 8군의 지휘를 맡은 리지웨이 장군은 방어선을 안정화 시키고 제한적인 규모로나마 공격을 시작했다. 1951년 4월부터 6월까지 70만 명을 동원한 제5차 대 공세가 실패로 끝나자, 모택동은 한국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후르시초프는 회고록(1971: 406)에서 말한다: "중국은 선전 포고를 하지 않고, 소위 의용군을 한반도로 보냈다. 이들 군대는 모택동이 가장 중히 여기는 팽덕회가 지휘를 맡았다. 팽덕회는 상황 보고에서, 적군을 포위와 측면 공격으로 아주 끝장을 내버릴

³⁴ Cumings (2005: 239-40) 인용.

³⁵ "김일성으로서는 중국 의용군이 전투를 넘겨 받은 1950년 10월에 전쟁이 끝난 셈이다. 그들은 김일성에게 전쟁 운영에 일체 간섭을 말라고 요구했다. 팽덕회는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은 자신과 맥아더 장군 사이의 싸움이니까 김일성은 아무 역할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다." 서대숙 (1988: 137)

³⁶ Chen (1994: 289) 참조.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불행히도 말대로 그렇게 빨리 끝이 나지 않았다. 중공군은 여러 차례 대규모의 패배를 당했다. 전쟁은 질질 끌여가기 시작했다. 양측이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버리자, 전장에서는 점점 더 사상자 수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았다.”

중화 인민공화국이 한국전쟁 참전으로부터 얻은 것

1951년 3월 중순, 유엔군은 38도선에 도달했다. 맥아더는 냉전이 바로 한국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결판이 나리라고 믿었다. 그는 만주를 폭격하기를 원했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를 한국에서 사용할 것을 원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가 전쟁 확대를 계속 고집한다는 이유로 유엔군 사령관 직위에서 해임시켰다.

1951년 6월 10일에 시작된 휴전 협상은 질질 끌기 시작했다. 1952년 9월 8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독립을 회복했다. 공산주의자들은 휴전 협상에서 마치 승리자인 양 행동을 했고, 소모적 전쟁은 계속되었다.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은 일찍이 맥아더의 부관 노릇을 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한국전쟁을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종결 시킨다는 암묵적인 공약을 하고 1952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³⁷ 1월 달에 취임한 후 한 달도 채 안되어, 아이젠하우어는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핵폭탄 사용 선택권을 거론했다. 당시 미국은, 필요하다면 3차 대전을 치러도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수량인 1,161개의 핵폭탄을 제조 보유하고 있었다. 델레스 국무장관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휴전협상을 조속히 종결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도의 네루 수상을 통해 모택동에게 핵폭탄 사용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마침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사망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북쪽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26,930명의 반공 포로들을 1953년 6월 18일 날 석방 하는 방법으로 휴전협상을 방해했다.³⁸ 1952년 5월에 린지웨이 후임으로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클락 장군은

³⁷ 스탈린은 12개 항공사단을 번갈아 가며 만주에 주둔 시켰다. 전쟁 후, 소련 공군 사령관은 한국전쟁 중, 단 345대의 소련 전투기 손실로 1,300대의 미군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당시 소련의 1개 항공사단은 약 120대 규모의 전투기로 구성되었다.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전사자는 약 54,000명, 부상자는 10만 명, 전비 총액은 540억달러로 추산되었다. Noh (2000: 175, 401) 참조.

³⁸ “주은래가 포로 문제에 양보 가능성을 타진하자,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강경 자세를 견지하라고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 1953년 7월 4일, 공산측 협상 대표들은, 포로들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한다는 방침에 동의했다.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 등을 포함한 미국측의 원조-지원 제안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휴전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조인되고 즉시 이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쟁 재발 시 인민해방군이 즉시 자동 개입한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해 주고 1958년에 인민의용군을 철수 시켰다.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년만인 1950년 10월에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죽었고, 경제 재건에 쓸 수십억 불의 자금이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점령 기회도 상실했다. 하지만 모택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 신생국가 초기단계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혁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자(抗美援朝)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3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통제를 효과적으로 강화했고, 중국 인민들 마음 속 깊이 당의 권위를 극적으로 인 각시켜주었다. 결과적으로, 모택동은 중국을 변혁할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취할 확신과 의욕이 생겼고, 집단농장화, 산업국유화, 반-우익 캠페인, 대 약진운동 등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또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각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해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³⁹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 2011 홍원탁 (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계속 권했다. 스탈린 사후, 그 후계자들이 전쟁 종식을 위해 재빨리 움직였고, 중국도 이에 따랐다." Stueck (2002: 172-4) 인용.

³⁹ Chen (1994: 220-3) 인용.